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가맹점 49.6%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2.6년(31.4개월)' 소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달 4~21일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사유로 △간편한 창업절차(41.4%), △가맹본부 경영노하우 등 지원 기대(18.7%) 등을 꼽았으며,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경쟁력(38.3%),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15.2%) 등으로 답변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경영양상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

약조건(2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 중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49.6%)는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했고,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35.4%)한 경우,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창업 후 3년 정도가 지나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데, 응답업체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형태로 가맹본부에 계속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하여 '구입강제품목이 없다'는 응답(13.6%)과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4.7%) 간에 31.3%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구입강제품목 구입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됐다.

참고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구입하는 필수적인 품목을 공급할 때 적절한 도매가격에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며, 계속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이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속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품목이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55.6%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17.3% 응답보다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구입강제품목 구입 시 가맹본부에 높은 차액가맹금 지불(63.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미공개(11.7%)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지정(10.4%)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79.4%로 '예'(20.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난산 발생률 37.5%로 가장 낮아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어미소, 예정일 하루 전 유도분만

농촌진흥청은 한우 우량암소 유래 수정란을 이식한 어미소(이식우)가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려면 분만 예정일 하루 전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우량암소 유래 수정란을 이식해 낳은 송아지는 일반 한우 암소에서 태어나는 송아지보다 체중이 5~6kg 더 나가 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 같은 이식우 특성을 고려해 가장 안전한 유도분만 시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우량암소는 후대축 도체중 480kg 이상, 등심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이상, 육량등급 B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유전능력이 우수 개체이다.

연구진은 우량암소 유래 수정란을 이식한 38두 중 한우 어미소 20



마리를 선정해 분만 예정 하루 전, 당일 다음날에 각각 유도 분만을 1회 주사하고, 분만까지 걸린 시간, 난산 발생률, 송아지 체중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도 분만제 주사 후 평균 39시간 이내에 분만을 마쳤으며, 유도 시점에 따라 난산 발생률 차이를 보였다. 유도 분만제를 하루 전에 처치했을 때 난산 발생률이 37.5%로 가장 낮았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 '2024년도 결산

운영공개' 상황리 마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오후 2시에 시문성교회에서 관내 조합원과 임·직원 등 2,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운영공개'를 상황리에 마쳤다.

이번 운영의 공개는 임인규 조합장 인사발령에 이어 전주농협의 박건후 조합원지원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경영전환에 대한 운영공개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주농협은 예산 및 사업 진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농협 운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임인규 조합장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에서도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직원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업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전주농협의 미래 성장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조합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 친환경 효과 커

논에 물 댄 후 썩레질 생략... 메탄가스 저감·수질 개선 효과

농촌진흥청은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가 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무논 썩레질 재배와 비교해 벼 수확량과 단백질 함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썩레질은 모내기 전 물을 대고 논흙을 부드럽고 고르게 하는 작업이다. 마른논 썩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썩레질(로터리)과 균평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기존 무논 재배와 다른 점은 논에 물을 댄 후에는 썩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이 찬 논에 썩레질을 생략하면 물 빠짐이 개선돼 모내기 후 뿌리 활력이



좋아지고 토양환경을 억제해 메탄가스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물 탄환이 덜해 수질오염이 줄고, 논병기에 집중되는 노동력 분산 효과도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른논 썩레질을 했을 때 무논 썩레질과 비교해 항상 물을 담아두는 상수 담수는 9.3%, 2주간 중간물떼기는 7.1% 메

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물떼기는 아삭 패기 전에 실시하는 물관리 작업으로 햇새끼지기 억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물관리 기술이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와 충남 홍성에서 마른논 썩레질 현장 실증 결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들이 적게 발생했다. 무논 썩레질보다 부유물질은 98%, 질소는 86%, 인은 88% 줄었다.

일반적으로 뜬 모나 빈 포기(결주)를 줄이기 위해 논에 물 높이를 맞추고 이앙하기 때문에 이앙 전에 물을 빼면 썩레질로 인한 흙탕물이 배출된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대학·사회복지법인과 3각 협업 협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11일 수원시에 위치한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구현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대학의 실천력 배양을 목표로 국제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및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 동근세상(장애인들의 자존능력과 일상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연금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됐으며, 공단은 연구원-대학-사회복지법인 간 3각 협업을 추진한다. /오상근 기자



(Co-work)을 통해 연금제도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학과 함께 △핵심역량강화 특강을 통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과정 지원 △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 등 공단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지원 △노인복지전문가 양성

중기부, 8개 부처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푸

드·애그테크, 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 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대표 홈페이지 '쉽고 빠르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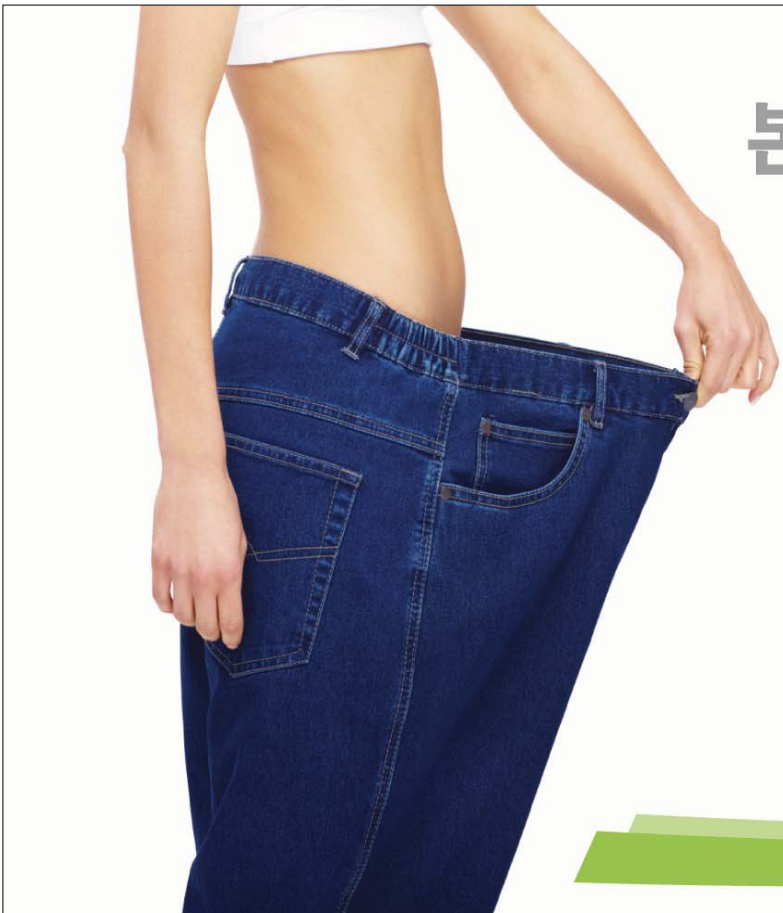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전북개발공사는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기존 홈페이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요구사항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타 기관 사례를 벤치마킹해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를 도입함으로써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리뉴얼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달간 진행되었으며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의 디자인 및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